

칼뱅에게 나타난 참된 교회의 표지

박경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임강사, 교회사

I. 서론

마르틴 루터가 은혜의 문제와 씨름한 개혁자라면, 장 칼뱅은 참된 교회라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했던 개혁자였다. 루터가 “내가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칼뱅은 “내가 어디에서 참된 교회를 발견할 것인가” 고심하였다.¹⁾ 두 개혁자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한 실존적, 역사적 상황에서 귀결된 것이었다. 루터는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물었고, 그 대답으로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grace)는 종교개혁의 유명한 슬로건을 발견하였다. 이 표어는 죄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루터에게 이 교리는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항목”이었다.²⁾ 물론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선행이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루터가 볼 때,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은총의 교리를 상실한 것으로 비쳤다.

비록 루터가 구원에 있어서 은총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재발견함으로써

1)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88), 132; idem,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4), 6.

2) Alister E. McGrath, 앞의 책(1994), 410.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지만, 교회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나 루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항의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로마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잘못을 개선하면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독자적 교회론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루터주의자들의 신앙고백서인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이 로마가톨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졌고, 1541년 로마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화해를 모색했던 레겐스부르크 회의(Colloquy of Regensburg)가 실패로 끝나자 양측은 일치의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로마가톨릭은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Trent Council)를 소집하여 프로테스탄트를 정죄하였고, 개혁자들도 이제 로마와의 분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론을 정립하고 종교개혁 운동의 정당성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이런 시점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칼뱅이었다. 칼뱅은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물었고, 그 대답으로서 로마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칼뱅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분파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칼뱅의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서부터 최종판(1559)의 흐름을 보면, 교회론은 주로 1543년판에서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³⁾ 이것은 앞에서 말한 1541년 레겐스부르크 회의의 실패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교회론을 정립할 긴급한 필요가 생겼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톨릭 신부이며 칼뱅연구자인 알렉산더 가녹지(Alexandre Ganoczy)도 레겐스부르크의 실패가 칼뱅의 교회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자극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 이런 점에서 볼 때, 칼뱅의 교회론은 단순히 교리적 관심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기도 하

3) Jean-Daniel Benoit,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 : How Calvin worked,” G. E. Duffield ed. *John Calvi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102-117; Wilhelm H. Neuser,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es 1536 to 1559,” W. van't Spijker ed. *John Calvin's Institutes : His Opus Magnum*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1986), 33-54.

4)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 by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7), 286.

다. 칼뱅은 자신의 교회론에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변호하였고, 로마교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루터가 구원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면, 칼뱅은 교회론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칼뱅은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로 보았는가? 그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그는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분파주의자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필자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칼뱅의 교회 표지에 대한 견해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 설교와 성례라는 두 가지 교회 표지가 참된 교회나 거짓 교회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 표지는 그의 교회론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교회표지에 대한 이해는 그가 로마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줄 것이다.

II. 본론-칼뱅의 교회 표지

칼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였다. 1559년 최종판 『기독교강요』에서 칼뱅은 “순수한 말씀 사역과 순수한 형태의 성례전 거행, 이 두 가지 표지가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간주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해도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⁵⁾ 이와 같은 칼뱅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만일 어떤 공동체가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공동체가 아무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전의 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칼뱅에 따르면 로마교회는 이 두 가지 표지를 지니지 못하였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었다. 말씀이 더 이상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고 성례전의 역할이 훼손되었다면 그 공동체는 거짓 교회일 뿐이다. 때문에 칼뱅은 로마교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ed. by John T. McNeill & tr. by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IV 권, 1장, 12절.

교황제도 하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거기에 얼마나 교회다움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씀 사역 대신에 거짓을 버무린 뒤틀린 조직이 로마교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순수한 빛이 얼마간은 꺼져버렸고, 일부는 희미해졌다. 주의 만찬 대신에 추악한 신성모독 행위가 도입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건지기 어려운 수많은 미신으로 퇴락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진리의 가르침이 없이는 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도 완전히 매장되었고 제거되었다. 공적인 모임들도 우상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다.⁶⁾

칼뱅은 로마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교회의 표지가 거의 왜곡되거나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칼뱅은 로마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의무였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말씀과 성례전의 참된 사역을 보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비록 어떤 공동체가 여러 오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⁷⁾ 교회의 표지를 보존하고 있는 복음적 교회들 사이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신앙의 일치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처럼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 즉 교회 표지는 교회일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다. 칼뱅은 교회의 두 표지가 유지되는 한, 복음주의 교회들의 분리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교회의 표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하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며 치명적 죄였다. 칼뱅은 교회의 표지가 존재한다면 “악한 영들은 항상 분열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보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일치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⁸⁾ 이처럼 가시적 교회의 두 표지는 칼뱅의 교회의 분리와 일치에 대한 이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앞의 책(1559, 1954), IV, 2, 2.

7) 앞의 책, IV, 1, 12.

8) 앞의 책, IV, 1, 9.

1. 교회의 첫째 표지-하나님의 말씀 설교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화시키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칼뱅은 말씀 설교를 신뢰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이 되며 사회 안에 경건한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동안(1536-1538, 1541-1564)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 동안(1538-1541) 쉬지 않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이쉽게도 1549년 이전 칼뱅의 설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1549년 이전의 설교 중 남아 있는 것은 두 편으로, 1545년 11월 4일 시편 115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와 1545년 11월 11일 시편 124편을 본문으로 한 설교뿐이다. 1549년 8월 25일 제네바 교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는데, 데니스 라구에니어(Denis de Raguénier)를 속기사로 임명한 것이다. 라구에니어는 1560년 죽을 때까지 칼뱅의 설교를 속기로 받아 적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칼뱅의 설교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그의 노력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칼뱅의 설교는 대체로 1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원고나 메모 없이 이루어졌다. 그는 주일 오전에는 신약, 오후에는 신약이나 시편, 주중에는 구약을 강해하였고, 특별한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말년에 건강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는 의자에 앉은 자신을 설교단으로 데려가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 1541년부터 주일은 두 번, 그리고 평일에는 세 번(월, 수, 금) 설교하였다. 1549년부터는 주일에 두 번, 평일에는 격주로 매일 설교하였다. 라구에니어의 목록(1549-1560년)의 설교 목록에는 2,042편의 칼뱅 설교가 열거되어 있다. 1560년 이후에는 추가로 263편의 설교가 기록되었다. 칼뱅의 설교 중 일부는 그의 생전에 출판되었지만, 많은 것들은 사후에 빛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의 설교가 1,500편 정도이니 약 800편의 설교가 분실된 것이다. 1805-1806년에 제네바 대학 도서관이 서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칼뱅의 설교 필사본들을 팔아버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일부 원고는 고물상에서 발견되어 되돌아왔지만 나머지는 사라져버렸다. 칼뱅의 설교 중 874편의 설교

가 『칼뱅전집』(Calvini Opera)에 수록되어 있고, 1961년 이후 칼뱅의 미간행 설교들이 『칼뱅전집보충』(Supplementa Calviniana)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다. 설교는 칼뱅의 전체 저술 중 대략 3분의 1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이다. 칼뱅의 설교는 『기독교강요』에 대한 중요한 보완자료가 될 것이며, 칼뱅 신학의 원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⁹⁾

칼뱅은 “교회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말함으로써¹⁰⁾ 설교가 하나님의 교회의 토대가 됨을 분명히 하였다. 바로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낳으시고 배가시키시는 것이다.”¹¹⁾ 설교를 통해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진리를 전해 주기” 때문에,¹²⁾ “살아 있는 말씀 설교가 그친다면 경건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다.”¹³⁾ 이처럼 설교는 믿음과 교회와 경건의 자궁과 같은 것이다.

칼뱅은 또한 설교는 성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였다. 칼뱅에 따르면 설교는 성서를 강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칼뱅은 츠빙글리의 전통을 좇고 있다. 츠빙글리는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로 첫발을 디딘 1519년부터 성서의 책 중 한 권을 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강해설교를 해나갔다. 칼뱅도 츠빙글리와 같이 성서를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하였다.(lectio continua) 미리 짜놓은 성서구절(lectionary)을 설교하거나 설교자 개인의 기호에 따라 본문을 선정하는 데 반대하였다. 칼뱅은 멜란히톤(Philip Melancthon)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멜란히톤의 설교 본문 선택방식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뱅이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가 1541년 9월 제네바로 돌아온 후, 1538년 중단되었던 설교에 뒤이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은 강해설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런 강해설교의 방식을 따라 123편의 창세기 설교, 200편의 신명기 설교, 343편의 이사야 설교, 174편의 에스겔 설교, 159편의 욥기 설교, 189편의 사도행전 설교, 176편의 고린도전후서 설교가 이루어졌다.

칼뱅의 설교 문체의 중요한 특징은 단순성과 명료함에 있다.¹⁴⁾ 이것은

9) 박경수, “칼뱅에게서 배우는 설교”, 『교회와 신학』(2006 겨울호), 52-60.

10)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Eph. 2:20.

11) 앞의 책, Ps 22:30.

12) 앞의 책, 1 Tim 3:15.

13) 앞의 책, Deut 31:9.

단지 칼뱅의 설교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과 삶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길 원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성서 본문에 집중하였다. 단 순성에 대한 칼뱅의 강조를 보여 주는 요한복음 주석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난해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교묘함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요 5:30)

이 주제를 더 장황하게 다루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간결성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요 5:46) 따라서 우리는 참되고 단순한 의미에 만족하자.(요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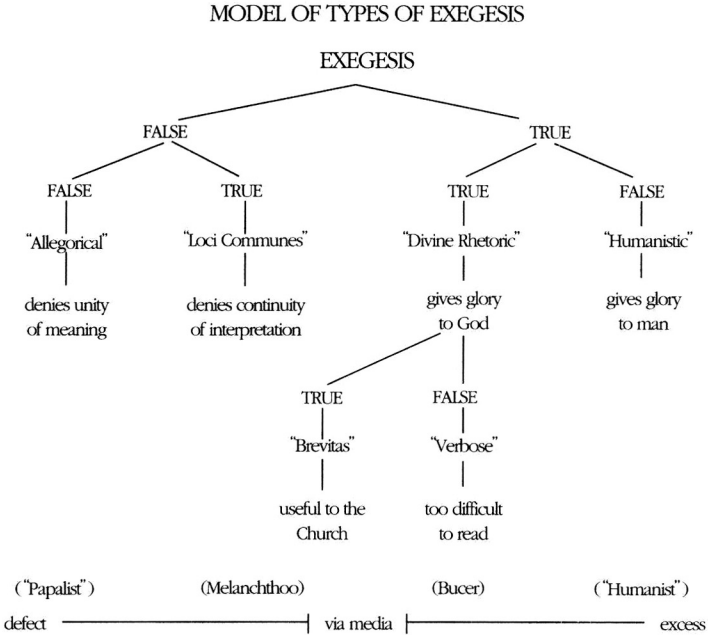
칼뱅은 멜란히톤이나 부처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설교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칼뱅은 멜란히톤의 설교는 본문선택에 있어서 편파적이라고 보았고, 부처의 설교는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했다. 칼뱅은 어렵고, 현학적이며,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을 나열하는 설교로는 설교 본연의 목적을 도무지 이룰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한 성서의 메시지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평신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칼뱅이 사용한 설교의 방식은 중용의 방법(via media)이었다. 중요한 칼뱅학자이며 영문판 『기독교강요』의 번역자인 포드 베틀스(Ford Battles)는 칼뱅의 신학적 방법론을 중용이라고 주장한다.¹⁵⁾ 베틀스에 따르면 칼뱅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들은 모두 과도한 극단 사이에 놓여 있다. 베틀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기독교강요』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였다. 리처드 갬블(Richard Gamble)은 칼뱅의 중용의 사람이라는 베틀스의 주장을 칼뱅의 주석에도 적용하고자 하였다. 갬블은 칼뱅의 성서 주석의 유형을 도표로

14) Richard C.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1985), 3.

15) Ford Lewis Battles, "Calculus Fidei: 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39-246.

표현하였다.¹⁶⁾ 아래 도표는 칼뱅이 중용의 입장을 선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도표에서 ‘은유적’ 주해가 좌측의 극단에 있다. 칼뱅은 온갖 공상적 이야기로 가득 찬 로마교회의 은유적 주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칼뱅의 갈라디아서 주석의 한 구절은 은유적 해석에 대한 그의 반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가톨릭주의자들은 성서는 풍성한 책이기에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나도 성서가 가장 풍요로운 책이며, 모든 지혜의 끝없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성서의 풍성함이 곧 누구라도 성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의 참된 의미는 단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품도록 하자.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난

16) Richard C.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1987), 163.

허구적인 해석들은 의심스러운 것이므로 무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부패이기에 과감히 던져버려야 한다.¹⁷⁾

도표의 우측의 극단에는 '인문주의적' 주해가 있다. 칼뱅은 비록 자신이 한때 인문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였다. 로마서 주석의 한 구절이 인문주의적 성서 해석에 대한 그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이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¹⁸⁾

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 사이에 두 가지 바른 성서 주해가 있다. 첫째는 멜란히톤의 『신학총론』(Loci Communes)에 나타난 성서해석이다. 하지만 칼뱅은 멜란히톤의 성서해석에 결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멜란히톤이 모든 성서의 본문을 살펴보지 않고 일부 본문만 선택적으로 주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파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의 성서해석이다. 칼뱅은 부처가 훌륭한 성서해석자이긴 하지만, 그 해석이 너무 장황하여 평신도들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결점이 있다고 보았다. 멜란히톤이 성서의 의미를 온전히, 그리고 충분히 밝히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부처는 지나치게 넘친다는 것이 칼뱅의 판단이다. 따라서 칼뱅은 모자라는 것과 넘치는 것 사이에서 중용을 취하고자 하였다.

칼뱅은 은유적 해석과 인문주의적 해석 사이에서, 또한 멜란히톤과 부처 사이에서 자신의 해석 방법을 찾았다. 이와 같은 중용의 입장은 칼뱅의 신학, 설교, 주석에 걸친 뚜렷한 특징이다. 교회일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칼뱅은 로마가톨릭과 급진적 재세례파 사이에서, 또한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 설교야말로 칼뱅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회의 표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칼뱅은 설교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현실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17) John Calvin, 앞의 책(1979), Gal 4:22.

18) 앞의 책, Rom 3:5

다. 다시 말하면 설교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 과 ‘새로운 공동체’ 가 형성되는 것이다.

2. 교회의 둘째 표지 - 성례

칼뱅에 따르면 교회의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보증하시는 외적인 표징이며, 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증언하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정의하였다.¹⁹⁾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보증하시고 더욱 생생하고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성례를 통해서 더욱 든든해지는 것이다.

1) 하나님의 자기조절로서의 성례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설교를 통해 귀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성례를 통한 물질적 요소를 통해 눈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칼뱅은 ‘자기조절’ (accommod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²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칼뱅은 ‘자기조절’의 개념을 고전수사학의 전통에서 빌려왔을 것이다.²¹⁾ 칼뱅 자신도 한때 인문주의자로서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수사학의 목적은 청중들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를 조절하고, 적용하고, 맞추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를 통한 자기조절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수사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 다우이(Edward Dowey)는 자기조절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

19) John Calvin, 앞의 책(1559, 1954), IV, 14, 1.

20) John Calvin, 앞의 책(1979), Ezek 9: 3-4.

21) David F. Wright, “Was John Calvin a ‘Rhetorical Theologian’?” John Leith and Robert Johnson ed. *Calvin Studies IX* (Davidson, NC: Colloquium on Calvin Studies, 1998), 46-69.

의하고 있다.

자기조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한정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을 일컫는다. 혹은 인간이 본질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존재의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줄이거나 조정하시는 방법이다.²²⁾

이 정의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기조절의 실례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기조절의 가장 놀라운 예는 성육신이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에서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광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의 낮은 수준에 맞추어 자기를 조절하신 것”이라는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나이우스(Irenaeus)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²³⁾ 성서 또한 하나님의 자기조절이다. 성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 교사, 의사로 표현하고 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 응얼거리는 유모와 같이 묘사되고 있다. 칼뱅에게 성서는 일종의 하나님의 응얼거림이다. 하나님의 자기조절의 가장 생생한 형식은 말씀 설교와 성례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합함에 따라 자기를 조절하시는데, 선포된 말씀이라는 ‘문서’와 물질적인 성례라는 ‘보증’으로서 그렇게 하신다.”²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성서 안에서, 말씀으로 들리도록, 성례로 보이도록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시는 것이다.

벤자민 밀너(Benjamin Milner)의 분석에 따르면, “칼뱅은 하나님의 자기조절이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성례의 상징들의 순서로 하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규범적 가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성례의 순서이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례, 설교, 말씀의 순서이다.”²⁵⁾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22) 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3.

23) John Calvin, 앞의 책(1559, 1954), II, 6, 4.

24) Ford L.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17-137.

25) Benjamin Charles Milner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Netherlands: E.J. Brill, 1970), 113.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마지막으로 선포된 설교에 근거한 성례가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성례가 설교보다 더 효과적이고 깊이 파고들며, 설교가 성서보다 더 감명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과 성례의 사역은 참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된다.

2) 성례의 의미, 본체, 효과

칼뱅은 성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성례가 지시하는 본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성례의 효과는 구속, 의로움, 성화, 그리고 생명이다.²⁶⁾ 무엇보다 칼뱅에 따르면 성례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성례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과 분리된 성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칼뱅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말씀의 약속이 없는 성례는 그저 ‘유치한 마력’(childish charms)일 뿐이며,²⁷⁾ “아무 쓸모도 없는 상징”일 뿐이다.²⁸⁾ 칼뱅은 말씀이 더해지기 전에는 성례의 요소들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칼뱅은 성례를 말씀의 부록이라고 칭함으로써 성례가 말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성례에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에 결합된 부록과 같은 것이다. 성례는 약속을 확증하고 보증하며, 약속이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도록 해주며 비준해주는 역할을 한다.”²⁹⁾ 따라서 칼뱅은 성례의 표징들을 원본 문서의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 것에 비유하였다. “정부의 문서나 공적 법령에 첨부되는 도장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서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도장을 찍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³⁰⁾ 말씀이 없는 성례를 칼뱅은 “우상이며 무의미한 그림자”,³¹⁾ “전적인 부패”,³²⁾ “미혹시키는 표징”이라고 불렀다.³³⁾ 따라서 성례의 표

26) John Calvin, 앞의 책(1559, 1954), IV, 17, 11.

27) John Calvin, 앞의 책(1979), Ex 24 : 5.

28) 앞의 책, Gen 31 : 47.

29) John Calvin, 앞의 책(1559, 1954), IV, 14, 3.

30) 앞의 책, IV, 14, 5.

31) John Calvin, 앞의 책(1979), Matt 28 : 19.

32) 앞의 책, Isa 6 : 7.

33) 앞의 책, Ex 24 : 5.

징은 말씀에서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칼뱅은 성만찬이 거행되는 날에는 목사가 설교 전체를 통해서 혹은 적어도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성만찬 성례전의 의미를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칼뱅은 로마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말씀과 성례가 굳게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다.

우선권이 말씀에 주어진다면, 성례는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각성시키고 확증하시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려고 사 용하시는 의식들”이라고 주장하였다.³⁵⁾ 선포된 말씀은 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며 우리 마음에 신앙이 생기도록 하는 반면에 성례는 말씀의 호소력을 강화시키며 신앙이 더 든든해지도록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확고했지만, 그 믿음은 “별을 봄으로써 더 강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붙들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위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상징들로 자극을 주신다. 그럼으로써 귀와 눈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신다.”³⁶⁾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의 감각에 더욱 가시적이며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서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례는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을 지지하며, 유지하며, 굳게 하며, 자라게 한다.

성례의 본체 혹은 본질은 그리스도,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이다. 칼뱅은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증언해주며,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 받았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물은 씻음을 상징하고, 피는 속죄를 상징한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³⁷⁾ 이처럼 성례의 본질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처럼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서처럼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권고 받는다.”³⁸⁾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는 빵과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나타나신다.”³⁹⁾ 따라서 칼

34) John Calvin, “The Form of Church Prayers, Geneva 1542,”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selected and introduced by Bard Thompson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0), 204

35) John Calvin, 앞의 책(1559, 1954), IV, 14, 19.

36) John Calvin, 앞의 책(1979), Gen 15 : 5.

37) John Calvin, 앞의 책(1559, 1954), IV, 14, 22.

38) 앞의 책, IV, 15, 5.

39) 앞의 책, IV, 17, 11.

뱡은 “그리스도는 모든 성례의 본체 혹은 본질”이라고 결론 내린다.⁴⁰⁾ 성례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성례도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성례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다. 칼뱅은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표징이라고 말하였다. 세례가 이 연합에 우리가 입회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주의 만찬은 이 연합에 우리가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표징이다. “세례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에 입문하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지속적인 양식이라고 할 것이다.”⁴¹⁾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상징이며,⁴²⁾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주의 만찬의 특별한 결실이다.⁴³⁾ 이 연합 안에서 칼뱅이 ‘놀라운 교환’(wonderful exchange)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는데,⁴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환되는 역사가 발생한다. 이 연합 안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신비한 교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만이 믿는 자들이 성례의 효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칼뱅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할 때에 성서는 언제나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례가 그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언제나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성례에 임해야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감정이 움직이며 우리 영혼이 열려서 성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⁴⁵⁾

성령이 없다면 소경의 눈에 햇살이 비치거나 귀머거리에게 소리가 울려도 아무 소용이 없듯 우리 마음에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말씀과 성례에 효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며 성례를 행할 때에 확증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성례 그 자체에

40) 앞의 책, IV, 14, 16.

41) 앞의 책, IV, 18, 19.

42) 앞의 책, IV, 15, 6.

43) 앞의 책, IV, 17, 2.

44) 앞의 책, IV, 17, 2.

45) 앞의 책, IV, 14, 9.

내재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능력을 통해서만 성례는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⁴⁶⁾ 엄밀히 말하면 성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성령에 대한 강조야말로 성례전 신학에 대한 칼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설교와 성례전을 제정하셨고, 이 둘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으셨다. 만일 어떤 공동체가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런 교회로부터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와의 일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 칼뱅에게 있어서 교회일치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과연 그 교회에 말씀과 성례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칼뱅은 로마교회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사이에서는 일치를 주장했던 것이다.

III. 결론

종교개혁자 칼뱅은 가시적 교회의 표지로 말씀과 성례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말씀과 성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소이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칼뱅의 확신을 잘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다. 칼뱅은 1536년 제네바의 개혁자로 초청받아 사역을 시작했지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1538년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후 칼뱅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부처의 초청으로 그곳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목회와 저술활동을 하게 된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생활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칼뱅은 제네바 교회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서 칼뱅은 제네바 교회의 성도들 중 칼뱅과 파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로 온 목회자들을 반대하면서 그들이 베푸는 성찬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칼뱅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질책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었다.(1539년 6월 25일자 칼뱅의 편지)⁴⁷⁾ 제네바 교회가 비록 자신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있

46)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Westminster, 1995), 149.

47) Jules Bonnet ed. *Letters of John Calvin*, vol. 1 (New York: Burt Franklin, 1972), 142-144.

는 이상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거나 새로 온 목회자들을 반대하고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책망한 것이다. 칼뱅은 말씀과 성례가 분명히 있다면, 비록 목회자들에게 사소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칼뱅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례는 교회를 교회이게 하는 참된 표지였다.

필자가 칼뱅의 교회 표지에 관심을 가지고 본 논문을 쓴 이유는 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말씀 설교와 성례의 표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심중으로 파고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흘리시는 보혈을 느끼도록 만드는”⁴⁸⁾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리처드 박스터의 유명한 표현처럼 “지금 하는 설교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선포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있는가? 세례 예식에서, 성만찬 예식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과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있는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고 있는가?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가 합당하게 행해지는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종교개혁자들의 첫 사랑과 첫 열정을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칼뱅, 교회 표지, 설교, 성례(Calvin, marks of church, preaching, sacrament)

48) John Calvin, 앞의 책(1979), Gal 3:1.

참고문헌

- 박경수. “칼뱅에게서 배우는 설교.” 『교회와 신학』 67(2006 겨울호), 52-60.
- Battles, Ford Lewis. “Calculus Fidei : 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6, 139-246.
- _____.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6, 117-137.
- Benoit, Jean-Daniel.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Institutio : How Calvin Worked.” G. E. Duffield ed. *John Calvi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 Calvin, John. “The Form of Church Prayers, Geneva 1542.”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selected and introduced by Bard Thompson.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John T. McNeill ed. & Ford L. Battles tr.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Ed. by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22 vol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 Dowey, Edward A.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 Gamble, Richard C. “Brevitas et Facilitas :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1985), 1-17.
- _____.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9 (1987), 153-165.
-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Tr. by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7.
- McGra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 An Introduction*. Oxford : Blackwell, 1994.
- _____. *Reformation Thought : An Introduction*. Oxford : Basil Blackwell, 1988.
- Milner, Benjamin Charles. J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Netherlands : E. J. Brill, 1970.
- Neuser, Wilhelm H.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es 1536 to 1559.” W. van't Spijker ed. *John Calvin's Institutes : His Opus Magnum*. Potchefstroom : Potchefstroom University, 1986.

Parker, T. H. L. *Calvin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 Westminster, 1995.

Wright, David F. "Was John Calvin a 'Rhetorical Theologian'?" John Leith and Robert Johnson ed. *Calvin Studies IX*. Davidson, NC : Colloquium on Calvin Studies, 1998, 46-69.

The Marks of the Church in Calvin's Thought

Park, Gyeong Su
Full-time Lecturer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Calvin clearly defined two marks of the visible church : Word and sacraments. In his *Institutes*, Calvin argued, "The pure ministry of the Word and pure mode of celebrating the sacraments are, as we say, sufficient pledge and guarantee that we may safely embrace as church any society in which both these marks exist." If any assembly has these two marks, we may call it a "church." Even though an assembly claims for itself the name of church, if it does not rightly preserve these two marks, we cannot call it a true church. Because the Roman Church did not possess the two marks, according to Calvin, it was not a true church. A false church is one in which the Word no longer has the primacy, and the role of the sacraments is destroyed. For Calvin, this was the major reason for separation with Rome.

In contrast, if any Christian assembly preserves the tru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s, we should not separate from it. Calvin said, "We must not reject it so long as it retains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s] even if it otherwise swarms with many faults." The evangelical churches must not divide from each other in spite of many nonessential differences among them. Rather they should keep the unity of faith for the glory of God and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The two marks of the visible church play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Calvin's ecclesiology but also in his whole theology.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in detail Calvin's thought about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s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his position on church. God has established both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which together constitute two marks of the church. If any assembly retains the true ministry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s, it is a true church of God.